

# 농촌 단독주택 부출입문의 기능 및 이용변화에 대한 사례조사

## Changes in Use and Functions of Second Doors in Detached Houses of Rural Area

변경화\* 이윤정\*\* 권영규\*\*\*  
Byun Kyeonghwa Lee Yunjeong Kwon, Young-Gyu

### Abstract

In contrast to apartments, detached houses offer the possibility of more than one entrance connecting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This study examines the location, function, and use of second doors in detached houses in rural areas. The study employs survey and interviews conducted in 2015, focusing on 18 detached houses among 40 houses previously surveyed in 1995. In 1995, 21 second doors were found, while in 2015, 19 were found. The study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most houses did have second doors installed by 1995 or 2015. Second doors tended to be installed in kitchen and utility rooms. The function of second doors was most closely connected to the kitchen because utility rooms were placed adjacent to kitchens. Secondly, changes in the use and number of second doors were changes in family life cycle and composition, the need for new equipment facilities, the use of new architectural materials, and the installation of new second doors for extension of space. Finally, exterior spaces accessed by second doors tend to be a meeting of semi-interior or semi-exterior space and exterior space only. Those spaces tended to be designed for kitchen fixtures or to support kitchen activities.

Keywords : Rural Area, Detached House, Second Door, Exterior Space

주요어 : 농촌지역, 단독주택, 부출입문, 외부공간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출입구는 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축요소로서 문자 그대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거나 경계를 짓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단독주택에 있어서 출입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문으로 도로라는 공적공간과 주택 부지라는 사적공간의 경계와 통로가 된다. 그리고 부지 내로 들어섰을 때의 또 다른 출입구인 현관은 외부와 건물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은 주출입문인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에서 대청마루를 통해 각 실로 이어지는 내부와 외부 공간이 이중적 경계를 가진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청과 툇마루 또는 쪽마루에 접한 각 실의 문은 내부공간의 경계를 짓는 문이면서 동시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위생과 가사활동의 보조공간으로서 효용성이 높았던 마당은 통용문, 부엌문, 쪽문, 뒷문 등의 명칭으로 불리어진 부출입문을 통해 내부공간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구성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한옥의 창호가 개항 이후 새로운 건축 재료의 도입으로 창호 개폐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공간형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리는 바깥 공기를 차단하면서도 시야를 확보해 주어 문과 창 의 마감 재료인 창호지의 대용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에서는 대청이나 툇마루의 전면 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개방적인 마루를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공간형식에 변화를 불러 왔다.1) 이로 인해 과거에는 대청과 툇마루 혹은 쪽마루가 있어 각 개실에서 외부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많았지만 서양식 주택의 영향으로 현관이라는 매개·진입 공간이 등장한 이후 외부 진출입이 하나로 집중되기에 이른 것이다.2)

즉 툇마루가 있어서 각 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던 한옥이 툇마루를 폐쇄하면서 외부와의 통로가 제한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주거공간이 실내화 되면서 유기적이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주출입문으로서의 현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공간의 변화와 형성은 근대 이후 주택에도 영향을 미쳐, 현관 중심의 출입문이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현관 이외의 출입문을 형성할 수 없는 아파트의 등장은 이러한 양상을 더욱 부추겼으며, 아파트가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주거양식의 하나로 정착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강해졌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외부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단독주택에도 출입문의 다양성

\* 가톨릭관동대학교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 조교수, 공학박사  
\*\* 동경대학(일본) 대학원 공학계연구과 객원연구원, 공학박사  
(교신저자, E-mail : jnappor@hotmail.com)  
\*\*\* 연성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연구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CKURF -201407030001)

이 논문은 한국농촌건축학회 2015 춘계학술발표대회의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1) 진봉희·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p.151.  
2)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pp.112-113.

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단독주택에 있어서 출입문에 대한 변화가 아파트 평면의 기계적 도입 때뿐만은 아니지만, 전통주거에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하였던 창호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출입문의 형식이 정착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논하고 싶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에서는 농사작업 및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행위가 주생활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보조 공간으로서 마당의 유용성이 높고 텃밭과 창고 등이 있는 외부공간의 활용이 높아, 외부공간과 연결되는 출입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라는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단독주택의 평면이 제안되고 있으며, 특히 부출입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에 있어서 부출입문의 기능 및 사용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에 있어서 부출입문의 다양한 기능을 파악하여, 단독주택의 평면계획에 반영하고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부출입문의 현황
- 2) 부출입문의 이용변화 및 요인
- 3) 부출입문과 접하는 공간의 유형 및 기능

###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95년에 실측조사가 이루어져 주택의 배치도와 평면도가 존재하는 강릉지역 40개의 단독주택을 1차 대상으로 하였다. 이 주택을 20년 후인 2015년 1월에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현관 이외의 출입문이 존재하는 18개의 단독주택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Figure 1). 최종 분석대상인 18개의 단독주택 중, 2015년 기준으로 행정구역상 강릉시에 소재한 경우가 4사례 존재하나, 1995년의 시점에서 농촌지역이었던 점에 착안하여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였다.<sup>3)</sup>

조사 방법은 1995년의 배치도와 평면도를 토대로 먼저 공간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된 공간에 있어서는 재실측을 하였으며,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간사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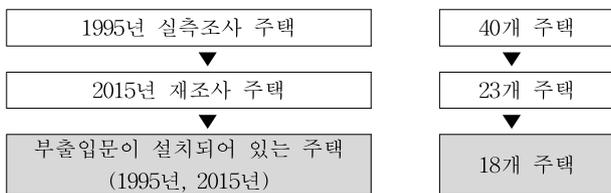


Figure 1. Process of selection of study cases

- 3) 18개 주택 중, 2011년에 신축한 경우가 1사례 있으나, 1995년 당시의 거주자와 동일하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 4)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단독주택의 내부 공간 각 실의 명칭은 2015년 조사대상 주택의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명칭으로 1995년의 평면도 상의 명칭과는 다소 다르게 표현되는 점도 있다.

### 1.3 연구대상 주택의 개요

18개 단독주택의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신축시기를 보면, 15개 주택이 1990년대로 본 연구의 1차 조사가 1995년이므로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이다. 2개의 주택이 1985년에 신축되었으며, 나머지 1개의 주택은 2011년에 신축되었는데, 동일한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자가 동일하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주택의 층수는 2층 주택이 1사례 있는데, 1995년 조사 당시에는 1층이었으나, 1999년에 2층으로 증축하여 임대하고 있다.

건축면적은 18평에서 30평으로 평균 약 25평정도<sup>5)</sup>이며, 11개 주택이 평지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거실의 향을 보면, 총 14개 주택에서 남서향, 남향, 남동향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남향 중심의 배치가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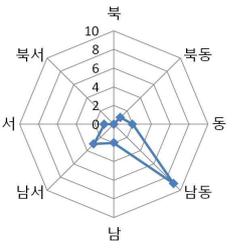


Figure 2. Direction of living room

Table 1. Information of detached houses studied

항 목		N	항 목		N
신축 연대	1985년	2	건축 면적	18평-22평	2
	1991년-1995년	15		24평-25평	5
				28평-28평	2
				29평-30평	2
주택 층수	1층	17	지붕 형태	평지붕	11
	2층	1		물매지붕	7
계		18	계		18

거주자 현황은 <Table 2>와 같다. 거주자의 수를 보면, 1995년 조사 당시에는 98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48명으로 20년이 지난 후에 약 반 정도 감소하였다. 1995년에는 1인 단독가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5년에는 4가구로 증가되었으며, 가족 수가 2인 경우도 1가구에서 8가구로 증가하였다. 2015년 1인 단독가구의 경우는 모두 64세 이상의 여성이며, 2인이 거주하는 8가구 중 6가구는 노부부이다.

세대 수를 보면, 1995년에는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2015년에는 동세대가 10가구로서 가장 많다. 2015년 동세대 10가구는 1인 단독가족이 4가구, 노부부 가족이 6가구이다. 2015년 거주자 48명 중, 65세 이상이 18명으로 이 중 여성이 11명이다. 1995년에 조사 당시 2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었던 가족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이나 취업으로 출가하면서 20년 후인 2015년에는 고령화 되었다.

Table 2. Information of residents

항 목		1995년	2015년
가족 수	1인	-	4
	2인	1	8
	3인	4	1
	4인	1	2
	5인	5	2
	6인	1	-
	7인	3	1
	8인 이상	3	-
계		98	48
세대	동세대	1	10
	2세대	12	3
	3세대	5	5
	계	18	18

- 5) 본 연구대상에 있어서 단독주택은 담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 부지면적은 <Table 1>에서 제외하였다.

### 3. 부출입문의 현황

#### 3.1 부출입문의 수 및 형태

본 연구대상인 18개 단독주택에 있어서 부출입문의 현황 및 특징은 <Table 3>과 같다(①주택부터 ⑱주택).

먼저 부출입문의 수를 보면(Table 4), 1995년에는 22개, 2015년에는 20개로 나타났다. 주택 당 설치된 부출입문의 수는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부출입문이 3개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1995년과 2015년 동일한 주택(①주택, ②주택)이다. 부출입문이 2개인 경우는 199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③주택의 경우 부출입문이 추가되면서 2015년에는 2개로 나타났다. ⑭번 주택의 경우, 주택의 각 실로 통하는 문이 정면에 4개 설치되어 있으나, 이 주택의 경우는 주출입문인 현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주택의 후면에 설치된 문만을 부출입문으로 한정하였다.

Table 4. No. of second doors per one house

주택 당 부출입문의 수	1995년	2015년
1개	16	12
2개	0	1
3개	2	2
계	22	20

Table 5. Type of second doors

문의 형태	1995년	2015년
미세기	2	1
외여닫이	20	19
계	22	20

부출입문의 형태는 외여닫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Table 5). 부출입문 형태에 있어서 수의 변화는, 동일한 부출입문의 개폐방식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부출입문 자체가 사라지거나 혹은 새로운 부출입문이 설치되면서 기존의 부출입문이 실내의 문이 되면서 부출입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서 나타났다. 즉 처음에 설치된 부출입문의 형태가 변경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 18개 주택에 있어서 부출입문의 폭을 조사한 결과, 1995년과 2015년 모두 620mm-2,800mm로 나타났다. 1995년과 2015년 모두 700mm이 8개 주택, 900mm이 5개 주택, 그리고 다음이 800mm의 폭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보면, 1995년은 약 914mm이며, 2015년은 약 873mm으로 나타났다. 폭이 가장 큰 2,800mm의 경우는 미세기문으로 ①주택의 전면에 설치된 된 경우이다.

#### 3.2 부출입문의 위치

주택배치를 기준으로 부출입문의 위치를 보면(Table 6), 주택의 후면에 위치한 경우가 1995년 13개, 2015년 11개로 가장 많으며, 측면이 7개와 6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

Table 6. Location of second doors

위치	1995년	2015년
주택의 정면	2	3
주택의 측면	7	6
주택의 후면	13	11
계	22	20

의 정면에 부출입문이 형성된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부출입문이 3개인 ①주택과 ②주택에서 나타났다.

부출입문이 위치한 내부공간을 살펴보면(Table 7), 부엌의 경우가 1995년과 2015년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용도실과 복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할머니방, 창고, 보일러실로 나타났다. 부엌과 다용도실을 보면, 1995년에 비해 2015년에는 부엌에 위치한 경우가 줄어들고 다용도실에 위치한 경우가 증가하였다. 부출입문이 할머니방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는 부출입문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1995년 조사당시의 공간의 용도가 2015년 조사 시에는 창고로 변경되면서 공간의 명칭만 변화한 경우이다(②주택). 부출입문이 보일러실에 위치한 경우는 199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2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③주택에 2개의 부출입문이 설치된 경우이다.

Table 7. Interior space installed second doors

부출입문 위치	1995년	2015년
① 부엌	13	8
② 다용도실 (증축된 다용도실)	5(1)	6(2)
③ 복도	3	3
④ 할머니방	1	-
⑤ 창고	-	1
⑥ 보일러실	-	2
계	22	20

\* 내부공간의 명칭은 2015년 인터뷰 당시 거주자가 사용한 명칭임.

### 4. 부출입문의 위치에 따른 기능

부출입문이 설치된 내부공간인 부엌과 다용도실을 보면, 1995년에 비해 2015년에는 부엌에 위치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다용도실에 위치한 경우가 증가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엌에 위치하지 않은 1995년의 9개와 2015년의 13개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먼저 1995년 9개 부출입문의 위치를 보면, 「부엌-다용도실-부출입문」이 4사례, 복도 3사례(①주택, ②주택), 「부엌-할머니방-부출입문」이 1사례(②주택), 「거실-다용도실-부출입문」이 1사례(③주택)로 나타났다. 복도와 할머니방에 부출입문이 형성된 주택에는 부출입문이 하나 이상으로 다른 부출입문이 부엌에 설치되어 있다. 「거실-다용도실-부출입문」인 ③주택은 거실과 부엌이 인접해 있어, 부출입문은 부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의 경우를 보면, 먼저 부엌과 다용도실 이외에 부출입문이 형성된 복도, 창고, 보일러실은 각각 ①주택, ②주택, ③주택으로서 1995년과 동일한 경우이다. 이에 다용도실에 부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6사례를 보면, 「부엌-다용도실-부출입문」의 동선으로서 모든 사례에서 부엌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부엌에 부출입문이 설치된 1995년의 13개의 주택 중, 12개의 주택은 다용도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5년의 7개 주택에도 다용도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즉 주택에 다용도실이 있지만 부출입문이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사례(④주택)만 존재하고 있으며, 이

Table 3. Information and using characteristics of second doors

주택 번호	1995년	2015년	수		내부공간의 위치		외부공간의 유형		특징 및 변화	Table 8. 항목
			1995년	2015년	1995년	2015년	1995년	2015년		
①			3	3	1. 부엌 2. 복도 3. 복도	1. 부엌 2. 복도 3. 복도	1. 반내부 공간 2. 주택의 측면 3. 앞마당	1. 반내부 공간 2. 주택의 측면 3. 앞마당	1-변화 없음 2.3-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사용변화 (특별한 날 사용) ·신축당시의 부출입 문-거실과 복도가 연결된 문	1-(1) 2-(2) 3-(2)
②			3	3	1. 부엌 2. 복도 3. 할머 니방	1. 부엌 2. 복도 3. 창고	외부공간 1. 뒷마당 2. 주택의 측면 3. 주택의 측면	외부공간 1. 뒷마당 2. 주택의 측면 3. 앞마당	1-변화 없음 2.3-가족구성원의 변화로 공간의 용 도가 변경되면서 부 출입문의 미사용(2), 그리고 사용빈도가 현저히 떨어짐(3)	1-(1) 2-(4) 3-(3)
③			1	2	다용 도실 (증축)	보일러 실	외부 공간	외부공간 1. 측면 2. 뒷마당	·보일러실의 증축 ·부출입문의 수와 위치 변화 ·신축당시의 부출 입문-거실 후면	'95, 1-(6) '15, 1-(7) '15, 2-(7)
④			1	1	부엌	부엌	외부공간 (계단)	외부공간 (계단)	다용도실이 존재하 지만 부출입문이 다 용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1-(1)
⑤			1	1	다용 도실	다용 도실	외부공간 (뒷마당)	외부공간 (뒷마당)	뒷마당 이용목적 사라지고(빨래날기 의 부적합), 주사용 자의 활동변경으로 사용빈도가 현저히 떨어짐	1-(3)
⑥			1	1	부엌	부엌	외부공간	외부공간	부출입문이 존재하 지만 이용가능하지 않음	1-(4)
⑦			1	0	부엌	-	외부공간 (옥상 계단)	-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부출입문 자체가 사라짐	1-(5)
⑧			1	0	부엌	-	외부공간	-	주택의 신축(1995년 도와 동일한 거주 자)으로 부출입문 이 존재하지 않음	1-(5)
⑨			1	0	부엌	-	외부공간	-	·실내화장실의 필요 (노년부부)에 의해 증축 ·원래의 부출입문은 실내 내부의 문으 로 사용	1-(6)

Table 3. Information and using characteristics of second doors (continuing previous page)

주택 번호	1995년	2015년	수		내부공간의 위치		외부공간의 유형		특징 및 변화	Table 8. 항목
			1995년	2015년	1995년	2015년	1995년	2015년		
⑩			1	1	부엌	(증축된) 다용도실	외부 공간 (계단)	외부 공간	·가족구성원의 확대로 인하여 다용도실 증축 ·부출입문의 위치변화	'95, 1-(6) '15, 1-(7)
⑪			1	1	부엌	다용도실 (증축)	외부 공간	외부 공간	·가족축소기에 다용도실 증축 ·출가한 자녀들의 방문에 대비한 공간사용 ·부출입문의 위치변화	'95, 1-(6) '15, 1-(7)
⑫			1	1	다용도실	다용도실	반외부 공간 (테라스)	반외부 공간 (테라스)	변화 없음	1-(1)
⑬			1	1	다용도실	다용도실	외부 공간 (옥상 계단)	반내부 공간 (옥상 계단)	·외부공간의 유형 변화 (반내부화)	1-(1)
⑭			1	1	부엌	부엌	외부 공간	외부 공간	변화 없음	1-(1)
⑮			1	1	다용도실	다용도실	외부 공간	외부 공간	변화 없음	1-(1)
⑯			1	1	부엌	부엌	외부 공간	외부 공간	변화 없음	1-(1)
⑰			1	1	부엌	부엌	외부 공간 (계단)	외부 공간 (계단)	변화 없음	1-(1)
⑱			1	1	부엌	부엌	외부 공간	외부 공간	변화 없음	1-(1)

경우에도 비록 부출입문이 부엌에 설치되어 있지만, 다용도실과 부엌이 인접해 있다.

결론적으로 부출입문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를 보면, 다용도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엌에 부출입문이 설치되고, 다용도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용도실에 부출입문이 형성되고 있다. 다용도실은 부엌을 통과하는 공간이나 부엌과 인접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부출입문의 역할은 부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도에 부출입문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부출입문의 수가 총 3개 존재하는 2개의 주택(①주택, ②주택)이다. 2개의 주택 모두 한 개의 부출입문은 부엌에 형성되어 있다. 그 중 2개의 부출입문이 복도에 형성된 ①주택의 경우를 보면, 주택이 신축될 당시에는 부엌과 옆문(거실 우측의 문)인 2개의 부출입문이 설치되었다. 신축당시의 복도는 지붕만 덮여 있는 반외부공간으로 거실의 옆문을 통과하여 방(현재 창고)으로 가는 길목이면서 신발을 놓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복도가 지붕만 덮여있어 비바람을 막아야 하고, 현관과 거실의 남측에 할머니방이 배치되어 남향배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내부공간이 필요하여 복도에 전면유리문을 설치하였다. 전면부에는 미세기문을 우측에는 작은 여닫이문을 설치하여 복도에만 부출입문이 2개 설치되었다. 따라서 ①주택에 있어서 부출입문의 수와 위치는 신축당시(2개)와 1995년 조사 당시에서 변화가 있었으나, 2015년에는 1995년과 비교하여 변화는 없다.

부출입문이 복도와 할머니방(1995년)에 설치된 ②주택의 경우는 <Figure 3>과 같이 외부에 있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이용을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주택을 신축할 당시 실내에 화장실이 있었지만, 화장실 냄새 등의 이유로 실내화장실은 소변만을 위하여 이용되었고, 그 외에는 외부화장실을 사용하였다. 신축당시부터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화장실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위한 부출입문이 설치되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출가하면서 노부부만 거주하게 되자, 외부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복도에 있는 부출입문은 건물 외부에 물건이 쌓여 있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자화장실을 위한 부출입문은 창고사용을 위해 이용되고 있지만, 과거의 할머니방이 창고로 사용되고 외부창고도 존재하면서 사용빈도는 현저히 낮아졌다. 외부에 있는 두 개의 외부화장실은 2014년 겨울 폭설로 건물이 무너져 화장실은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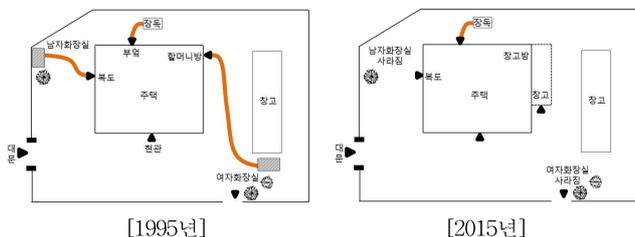


Figure 3. Change in use of second doors in ② House

보일러실에 부출입문이 형성된 ③주택의 경우는 1995년에는 [거실-다용도실-부출입문]이 2015년에는 [거실-다용도실-보일러실-부출입문 2개]으로 변화되었다. 이 주택은 신축당시에는 거실 후면에서 외부로 통하는 부출입문이 형성되었으나, 신축 1년 후 다용도실이 필요하여 거실 후면의 부출입문과 접하는 외부공간에 다용도실을 증축하게 되었으며(③주택에서 1995), 이후에 다시 보일러실을 다용도실과 연결하여 증축한 경우이다(③주택에서 2015). 따라서 이 주택의 경우에는 부출입문이 3회 변경된 경우로서, 신축 당시에는 거실 후면에 1개에서, 신축 1년 후 다용도실에 1개 설치, 그리고 2008년 보일러실의 증축으로 2개의 부출입문이 형성되었다.

## 5. 부출입문의 사용변화 및 요인

부출입문의 사용에 대하여 1995년과 2015년의 변화를 보면, <Table 8>과 같이 7가지로 나타났다.

1995년	2015년	수
사용되고 있음	(1)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10
	(2) 특별한 날에 사용되고 있음	2
	(3) 사용빈도가 현저히 떨어짐	2
	계	14
사용되지 않음	(4) 문의 형태는 존재하지만 이용이 가능하지 않음	2
	(5) 문의 형태 자체가 사라짐	2
	(6) 문은 존재하지만 부출입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4
	계	8
없었음	(7) 새롭게 부출입문이 형성됨	4
합계		26

### 5.1 부출입문의 지속적 사용

1995년의 22개의 부출입문을 기준으로 2015년에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14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8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출입문이 2015년에는 새롭게 형성된 경우가 4개로 나타났다.

1995년의 부출입문이 2015년에도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출입문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증개축이나 주택 내부의 평면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10개의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에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부출입문이 2015년에는 특별한 날에만 사용되거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부출입문이 접해 있는 외부공간의 특성 때문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의 변화로 인하여 부출입문을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 경우는 ①주택의 복도에 형성되어 있는 2개의 부출입문이다. 이 주택의 경우는 1995년에는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2세대 가족으로서 5명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후 자녀들의 출가하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20년이 지난 2015년에는 할머니 혼자 생활하는 단독가가 되었다.

었다. 동일한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게 되면서 생활영역이 좁아져 「거실-복도」와 연결되는 2개의 부출입문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추석이나 설날 혹은 가족모임등 출가한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사용하게 된다. 즉 이용자가 증가하는 특별한 날이 되면, 평상시 할머니의 단독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던 공간들을 사용되게 되고, 부출입문도 이용하고 있다.

사용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의한 변화로서 2개의 사례가 나타났다(②주택, ⑤주택). 먼저 ②주택을 보면, 2개의 부출입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중 부엌이 아닌 창고에 설치된 부출입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 창고는 1995년 조사 당시에는 「아궁이가 있는 곳」으로 1995년 당시에는 할머니가 생활하던 방에 군불을 때는 공간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방이 창고방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서 방에 군불을 때던 아궁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그 공간이 창고로 변화하였지만, 이 주택은 마당에 창고가 존재하므로 아궁이가 존재하는 공간인 창고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다.

⑤주택의 경우는 가족구성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출입문이 접하는 외부공간의 특성 때문에 사용빈도가 낮아진 사례이다. 이 주택은 다용도실에 부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어머니가 마당의 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나 뒷마당에 빨래를 널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뒷마당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빨래 건조에 적합하지 않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 주택은 여름철의 빨래는 남향인 앞마당을 이용하고 겨울철에는 거실에서 빨래를 널어놓는다. 따라서 이 주택의 부출입문은 뒷마당에 빨래를 너는 목적과 어머니의 텃밭 농사를 위한 출입을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신축당시 빨래 널기의 목적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텃밭출입 용도로 사용되면서, 1차적으로 사용빈도가 떨어지고, 현재는 어머니의 사용도 낮아져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다.

## 5.2 부출입문의 변용

### (1) 부출입문의 변용 사례

부출입문의 변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995년에 사용되었던 부출입문이 2015년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3가지 형태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1995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출입문이 2015년에는 새롭게 형성된 경우이다.

먼저 1995년에 사용되었던 부출입문이 사용되지 않는 3가지의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는 부출입문의 위치와 형태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다(②주택, ⑥주택). ②주택의 복도에 있는 부출입문은 외부에 있는 남자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부출입문의 외부에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 ⑥주택의 경우는 부엌에 있는 부출입문의 앞에 싱크대와 수납장이 설치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부엌이 좁고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서 수납공간의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는 1995년에 존재하였던 부출입문 자체가 사라진 경우가 2사례로 나타났다. ⑦주택의 경우, 1995년 실측조사 당시에 부출입문이 부엌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는 부출입문 자체가 없어졌다. 과거에는 할머니가 외출 혹은 시장에 가실 때에 사용하였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사용할 사람이 없어져, 문을 벽으로 막고, 실내에는 냉장고를 두어 현재에는 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출입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부출입문의 외부에 있는 난간과 계단이 과거에는 부출입문의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단지 물품을 올려두거나 저장해 두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1995년에 존재하였던 부출입문 자체가 사라져 사용되지 않는 다른 사례는 1995년 주택을 허물고 2011년 신축한 경우이다(⑧주택). 이 주택은 동일한 부지에 신축한 것이 아니라 근처의 택지에 신축한 경우인데, 신축주택에 부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거주자에 의한 신축이므로 본 연구대상 주택에 포함하였다. 주택 부지가 변경되면서 텃밭이 사라지고 농사일이 주거생활과 분리되면서 부출입문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셋째, 1995년 조사 당시에 부출입문으로서 이용되었고, 2015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그 위치에 존재하지만, 부출입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사례 나타났다. 이는 부출입문이 위치한 외부에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이 증축되면서 1995년의 부출입문이 주택내부의 문이 되면서 더 이상 부출입문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1995년 존재하지 않았던 부출입문이 2015년 새롭게 형성된 경우는 이상의 4개의 사례 중, 부출입문과 접한 외부공간에 완전히 내부화된 공간(다용도실 겸 화장실)이 증축되면서 증축된 공간에 새롭게 부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원래의 부출입문은 존재하지만, 용도가 부출입문이 아니라 주택 내부의 문으로 용도가 변화된 것이다. 증축된 공간은 보일러실(③주택)과 다용도실(⑩주택, ⑪주택)이다. 따라서 이 3개의 주택에서 증축된 공간에 있는 4개의 부출입문은 1995년 조사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새롭게 형성된 부출입문에 해당한다[Table 8, (7)항].

### (2) 부출입문의 변용 요인

부출입문과 접하는 외부공간의 증축으로 인하여 부출입문의 사용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설비시설인 보일러실의 필요(③주택)와 가족구성원의 변화(⑨주택, ⑩주택, ⑪주택)에 따른 공간 확장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있어서 ⑨주택의 경우는 현재 거주하는 노년기 부부가 외부화장실 사용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내에 화장실을 증축한 것이다. ⑩주택과 ⑪주

택은 모두 다용도실을 증축한 경우인데, ⑩주택의 경우는 가족확대기에 다용도실을 증축하여 실내공간을 확장하였지만, ⑪주택은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인 노년기 부부만 생활하는 시기에 다용도실을 증축한 사례이다. 증축된 다용도실은 부엌과 관련된 물품과 도구의 수납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노년기 부부만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용되지 않는 실들(출가 전의 자녀들이 사용하던 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엌과 인접하여 다용도실을 증축한 이유는, 명절이나 특별한 가족행사가 있을 때 출가한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노년기부부를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지만 자녀들의 방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대신 일시적으로 많아진 가족들을 위한 부엌과 살림살이를 위한 공간은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가족이 축소기 단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주거공간의 영역이 축소기 단계의 노인부부를 위하여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확대기에서 요구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실내공간의 규모가 요구되기도 한다.

## 6. 부출입문과 접하는 공간의 유형 및 기능

주택의 부출입문과 접하는 외부의 공간유형은 반내부·반외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구분되었다(Table 9). 이 공간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능은 창고, 보일러실, 쓰레기의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Types and function of exterior space connected second doors

공간유형	공통기능	다른 기능
반외부·반내부공간	창고, 보일러실, 가스통 설치공간, 쓰레기 임시보관, 계단(옥상)	장독대, 김치독, 농기구 및 농기계, 텃밭 및 정원,
외부공간		

### 6.1 반외부·반내부공간

부출입문과 접하는 외부를 반외부·반내부공간으로 형성된 사례는 3개의 주택에서 나타났다. ⑫주택의 경우는 [부엌-다용도실-부출입문-테라스]의 동선으로 이어지는 반외부공간이 형성되었다. 이 주택의 부출입문은 다른 주택과 달리 테라스 공간으로만 연결되고 있다. 주택이 부지에서 수직 80cm정도의 기단위에 건축되었는데, 부출입문과 연결된 테라스에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계단이나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마치 아파트의 후면 베란다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른 농촌주택과는 달리 다용도실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

부출입문과 접하는 외부가 반내부공간으로 형성된 경우는 2사례가 나타났다. 첫째는 부출입문과 접한 외부공간을 주택의 담장과 연결하여 지붕을 덮어, 반내부화한 경우로

①주택의 부엌에 위치한 부출입문이 이에 해당한다. 이 주택은 보일러실과 창고가 필요하여 부출입문과 접하는 외부를 반내부공간으로 형성하였다(Figure 4).

다른 하나의 사례는 ⑬주택으로, 이 주택은 PC(Polycarbonate)골판을 이용하여 부출입문과 접하는 외부를 내부화하였다(Figure 5). 이 주택은 도로와 접해 있어서 부출입문을 열면 도로와 직접 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주택은 외부로부터 시선차단이 요구되면서도 햇볕, 바람, 비 등의 자연환경에 대응할 필요에 의해 PC 골판을 활용하여 반내부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PC 골판을 활용한 방식은 1990년대 신축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건축재료의 도입으로 보다 쉽게 공간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Figure 4. Semi-interior space of ① House



Figure 5. Semi-interior space of ⑬ House

### 6.2 외부공간

부출입문이 접하는 외부공간을 보면, 가사작업과 관련된 공간뿐만 아니라 농촌주택의 특성이 나타난다. 먼저 가사작업과 관련해서는 장독대, 김치독 묻는 장소, 가스통 보관 장소 등의 기능이 나타났다. 특히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에 장독대를 놓는 경우가 많아, 부출입문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가사작업공간으로 활용되는 아파트의 후면베란다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손세탁작업장, 세탁물말리기, 세탁기의 설치장소와 같은 세탁물과 관련된 작업공간으로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출입문이 주택의 후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출입문과 접한 뒷마당에서 세탁물을 건조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주택들이 대부분 남향이므로 세탁물은 남쪽마당인 앞마당이나 현관과 연결된 전면베란다를 이용하고 겨울철



Figure 6. Use of exterior space connected to second doors

에는 거실에서 세탁물을 말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가 겨울철인 1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겨울 이외의 계절에 있어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농사일과 관련된 창고, 농기구 및 농기계의 보관이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들은 텃밭이나 정원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서 부지 한쪽을 차지하게 된다. 농촌지역 단독주택의 외부공간의 용도를 간략히 구분해 보면, 주택의 전면부는 정원, 빨래널기, 수돗가가 배치되고, 주택의 후면부에는 창고나 텃밭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본 연구대상의 18개의 단독주택에 있어서 정원이나 텃밭이 있으면서 창고가 존재하는 경우가 13개 주택인데, 외부창고가 시기적으로 늦게 지어질 때에, 부출입문과의 동선 때문에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는 부출입문이 전체적인 외부공간의 용도를 결정짓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출입문이 창고의 위치를 결정짓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례가 조사되었지만, 부출입문의 위치와 외부공간의 성격에 따른 배치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5년에 실측조사를 통하여 주택의 배치도와 평면도가 존재하는 강릉지역에 소재하는 40개의 단독주택 중에서 2015년 재조사를 통하여 부출입문이 존재하였거나 현재에도 존재하는 18개의 주택을 선정하여, 부출입문의 현황과 이용변화 및 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인 18개의 단독주택에 있어서 부출입문은 1995년에는 22개, 2015년에는 20개로 나타났다. 주택 당 설치된 부출입문의 수는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부출입문이 2개와 3개인 경우도 나타났다.

부출입문이 존재하는 내부공간은 부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용도실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가사노동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나타났다. 옥상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 계단의 지점에 부출입문이 형성되어, 옥상이 가사노동의 보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출입문이 2개 이상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는 부엌이나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한 공간이 필요하여 증축이 요구될 때에는 부출입문과 접해있는 외부가 증축공간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의 증축으로 인하여 부출입문의 수와 위치가 변화되고 있다.

부출입문의 사용변화와 공간의 증축으로 인한 부출입문의 위치변경과 같은 공간변화의 주요 요인에는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조사가 20년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가 변화하여, 가족확대기를 유지하거나 가족축소기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가족축소기 단계에 있어서 노년기부부를 위한 실내화장실의 증축과 고령화로 인하여 텃밭 이용의 감소로 부출입문의 사용변화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거 부출입문의 주이용자가 사망하여, 부출입문이 존재하는 공간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부출입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족확대기에는 실내공간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노년기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생활영역이 작아져 평상시에는 부출입문을 사용하지 않지만, 명절 등 특별한 날에는 출가한 자녀들의 방문으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사용하면서 부출입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 노년기가족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주거공간의 영역이 노인부부만을 위해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확대기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실내공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출입문을 가사노동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확장과 축소기까지의 단계를 고려하여 증축 및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계획해야 할 것이다.

주택부지와 접하는 공간에 새 도로가 개설되면서, 대문의 위치가 변경되어 기존에 있는 현관보다 부출입문이 오히려 주출입문의 역할을 하는 사례도 조사되어, 출입이라는 기능에서 도로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넓은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외부공간과 실내를 연결하는 출입구의 다양한 계획을 통하여 평면계획과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보다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의 부출입문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와 논의가 추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전봉희·권용찬,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2012.
2.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접 수 일 자 : 2015. 10. 10

심사완료일자 : 2015. 11. 20

게재확정일자 : 2015. 11. 23